

17-18세기 서양 남자바지 패턴변화

김 양 희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겸임교수

Evolution for Construction of Trousers in the Western World -during the 17th and 18th centuries-

Yang-Hee Kim

Concurre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Inha University
(2006. 5. 31 투고)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structure of trousers worn by males in the western world during the 17th and 18th centuri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evolution in construction. It mainly examined engravings from these eras because they provided me fine and detailed portrayals of what it needed to observe. Then, it classified them into models according to each era. It supplemented a flaw of depending on single type of studying material by examining other types of historical materials such as historical paintings and documents for comparative analysis of materials and decorations and previous studies on preserved historical documents to observe the examples of structures of trousers.

Secondly, it studied both historical documents and previous studies on the trousers patterns used back in those days,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esigning method by actually draping these patterns, and observed the differences in these completed pattern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fashion design skill.

As for the changes in length, these patterns show only a slight difference around above and below the knee line. However, the widths of waist, hip, girth and hem were significantly altered over the years to reduce wrinkles and the cutting lines became more refined to make the clothes fit to the body. As a result, a simple but fine patterning technique was born. In particular, new methods in cutting and sewing were invented for detailed parts such as waist, pocket, front and slit.

Key words: culotte(바지), pattern(패턴), man's cloth(남성복)

I. 서론

서양 역사연구에서 경시되어 오던 복식에 대한 연구는 정치사, 경제사 위주의 거시적 관점의 연구에서 물질 문화사 측면의 미시적 연구로 그 흐름을 달리하면서 새로운 출구와 방향성을 가지게 되었다. 최근 물질문화의 기본인 의식주와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은 삶의 방식을 통한 개인 혹은 사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연구결과를 낳게 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기술 분석에 따른 물질문화의 진보에 관한 연구는 문화발전의 측정과 직결하는 징후들을 제공하게 한다. André Leroi-Gourhan은 "진화와 기술"¹⁾에서 물질문화를 기술의 영역에서 조명해야 하며, 원료변형을 위한 인간의 작업들은 기술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인간행동의 진보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러한 기술연구는 물질문화사 구성을 위한 주된 문제라고 하였다. 이는 복식의 역사를 민속학을 포함하는 문화인류학의 다 학제적 관심으로 접근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16-17세기 서양 남자바지의 형태분석으로 구조적 특질을 파악하여 의복구성기술의 변화 특성을 이해하는 것에 있다. 일차적으로, 세밀한 묘사로 형태관찰에 용이한 그림사료인 판화를 중심 사료로 하여 발굴, 수집하고 분류를 통해 목록 화하여 견고한 자료군의 기초를 마련한다. 이러한 양적분석은 여러 시각에 의해 생산된 다량의 사료분석에 의해 시기별 복식형태의 대표모델의 설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판화는 다양한 자세로 묘사가 되어 있어서 다각도에서의 관찰이 가능하고, 같은 유형이지만 형태상, 장식 상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 다양함 또한 관찰할 수 있게 한다. 또, 판화에서 분석할 수 없는 점들은 타 사료들과 비교하여 단일 사료의 결함을 보완한다. 몇몇 그림과 글 사료들을 통해서도 소재와 장식의 비교적 고찰이 가능하며 희귀한 보존사료에 대한 선행 연구에 의해서는 형태 및 구성의 예를 관찰할 수 있다. 이차적으로, 이렇게 분석된 복식의 패턴에 관한 당시의 문헌과 선행연구를 비교분석하고, 입체재단으로 패턴을 재현하여 그 구성방법의 특징을 고

찰한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패턴의 변화를 비교하므로 의복제작기술의 변화특징을 연구한다. 특히, 구간부의 연결과 피팅을 위한 봉제법이나 패턴 구성의 변화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II. 사료고찰에 의한 유형분류 및 형태고찰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소장 판화국에서 남녀 복식에 관한 목록 번호 Oa 19 와 Oa 20 컬렉션 중, 17-18세기에 다양한 작가들에 의해 제작된 일반복을 수록한 판화 874점을 수집하였다. 이 중 여성복을 제외시켜, 바지를 관찰할 수 있는 판화 328장을 선택하고, 이를 다시 연도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75장의 오 드 쇼스(haut-de-chausses, 브리치즈 breeches)가 1630년경에, 22장의 오 드 쇼스 앙 빵팔롱(haut-de-chausses en pantalon, 브리치즈 breeches)이 1650년경에, 15장의 랭그라브(rhingrave, 페티코트 브리치즈 petitcoat breeches)가 1650-1660년경에, 216장의 쥘로뜨(culotte, 브리치즈 breeches)가 1700년 이후로 분류되고 쥘로뜨는 다시 일습으로 착용하고 있는 상의 실루엣의 변화를 참조하여 바지 밑착정도에 따라 1700년, 1730년, 1770년으로 분류되어 모두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졌는데, 이중 1650년경의 오 드 쇼스 앙 빵팔롱과 1660년경의 랭그라브는 허리 주름 폭의 변화 외에는 같은 패턴형태를 지니므로 같은 유형으로 보고, 전체를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다소 미화된 패션판화가 주된 자료를 이루고 있으나, 여러 작가의 판화에 의해 관찰되어 객관적인 시각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와의 간격을 좁힐 수 있으리라 본다. 또, 연도의 결함이 없어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불확실한 추정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집된 자료들 중 컬렉션들의 제목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궁중인물, 귀족 등 상류층이 주요 등장인물로서, 관찰이 일부 계층에 제한되어 있음을 먼저 밝힌다.

최종적으로 그림, 글, 보존 자료 등 다양한 사료 간의 비교를 통해 색상, 재료, 내부구조 및 봉제를

관찰하여 관화 단일 사료의 결점을 보완하였다.

1. 1630년경 오 드 쇼스(haut-de-chausses) 형태

A. Bosse의 1630년경의 관화들에서²⁾ 볼 수 있는 이 시기의 대표 유형을 관찰해보면 일반적으로 허리에서 주름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풍성히 잡아 엉덩이 부분이 부풀려지는 볼륨을 형성하고, 아래로 갈수록 좁아 들어 무릎 바로아래 길이에까지 이른다. <그림 1>

모델과 유사한 Nürnberg의 Germanisches Nationalmuseum에 보존된 1620년경으로 추정되는 베네시안 바지가 J. Arnoult에 의해 패턴으로 옮겨졌다. 관찰에 의하면³⁾, 오 드 쇼스의 풍성한 허리 주름은 좁은 허리띠에 꿰매어 고정하였고 허리띠에 고리를 부착하거나 구멍을 내어 끈으로 뿌르쁘앙의 바스끄 아래 구멍 테입과 연결하였고, 앞트임을 하여 천을 길기로 덧대어 단추를 달아 잠그게 하는 브라켓뜨(braguette, 프론트 플라이 front fly)로 여몄다. London의 Victoria and Albert Museum에 보관되어 있는 1630년경의 전면에 슬래쉬 장식이 되어있는 연두색 새틴 뿌르쁘앙(pourpoint, 더블릿 doublet)과 일습인 오 드 쇼스 <그림2> 역시 허리 고리가 없이 앞뒤 중심에 끈 연결 구멍이 있고, 브라켓뜨를 밖으로 덮어 앞여밈을 하도록 되어 있는 작은 차이 외에는 매우 유사한 유형이다.⁴⁾

무릎옆선에는 트임이 있어 대부분 열어 두었다. 바지 단 쪽으로 폭이 줄어든 경우는 그냥 두었지만 무릎 밑단이 넓을 경우에는 리본으로 묶었다. 무릎 아래 종아리부분에는 밀라노 혹은 영국산 견이나 모 소재의 니트 양말과 리본이나 꽃모양 장식의 구두를 신거나 입구가 넓게 벌어진 부츠를 신었다.⁵⁾

오 드 쇼스는 F. Elle의 그림처럼 바지 옆선이나 전면에 트리밍이나 단추 띠로 장식하였다.⁶⁾ “금속으로 씌어진 옆선을 장식하는 84개의 단추가 있는 장식된 물결무늬 베니스 견직물의 쇼스; 네덜란드산 섬세한 평직 바지 사지 안감 물결무늬 견직물로 주머니 입구와 셔를 장식 같은 색으로 염색한 뚜르산 실크 장식 끈, 장식 은으로 된 잠금 고리... (Chausses en tabis de Venise nuance racine, passementées

comme dessus avec 84 boutons à ferluches sur le côté, tête façon orfèvrerie ; caleçon en fine toile de Hollande doublure de serge escot pochettes et parements intérieurs dudit tabis galon de soie de Tours, même teinte agrafes façon argent...)” 이같이 로렌 궁정의 1631년 5월 15일 문서에서도 자세한 장식과 그 재료를 위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⁷⁾



<그림 1> 패션과 법령 Abraham Boss, 1634



<그림 2> 1630년경 오 드 쇼스 런던 V&A 박물관, 17세기초

2. 1660년 오 드 쇼스 앙 빵팔롱(haut-de-chausses en pantalon)과 랭그라브(rhin-grave)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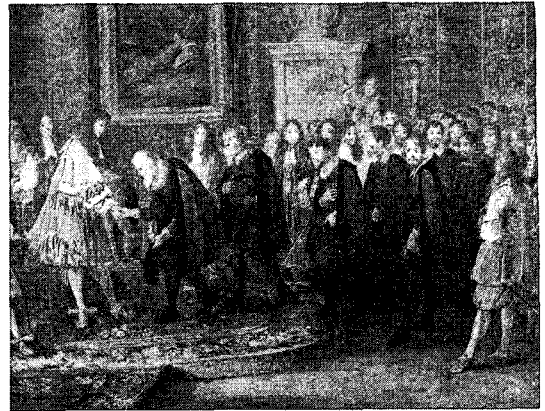
Musée du Louvre에 소장된 Le Nain의 그림⁸⁾ '게임하는 사람들(Les joueurs de tric-trac)'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지 단 폭이 좁아들지 않고 통이 일직선이며 무릎선의 짧은 길이인 다소 소박하고 단순한 북유럽 영향의 오 드 쇼스 앙 빵팔롱(haut-de chausses en pantalon)이 1650년대 10여



<그림 3> 게임하는 사람들 Le Nain, 1650

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 잠시 입혀졌다. <그림 4>

1660년에 와서는 이 북유럽의 검소한 스타일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프랑스의 화려한 패션이 다시 주도권을 잡게 된다. Musée de Versailles 에 소장된 Van der Meulen의 '스위스 대사를 접견하는 루이 14세(Louis XIV recevant les ambassadeurs suisses)'⁹⁾ 는 매우 빠른 유행으로 복식변화가 진행되는 당시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 <그림 5> 루이 14세와 프랑스 궁정 귀족들의 새로운 패션은 스위스 대사들의 검은색 북유럽 풍 옷들 옆에서 더욱 화려한 모습으로 대비된다.



<그림 5> 스위스 대사를 접견하는 루이 14세 Van der Meulen, 1660



<그림 4> Charles Gustave 10세의 옷 스톡홀름 왕립군사박물관, 1650년경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스타일이 혼용되는 가운데 새로운 유형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그림 맨 오른쪽 구석의 인물에서 앞으로 백여 년간 남성 복의 기본이 될 새로운 유형인 쥐스토포르(justaucorps, 코트 coat)와 필로뜨(culotte, 브리치즈 breeches)의 초기 스타일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왕이 착용하고 있는 풍성한 바지는 1660년을 대표하는 유형인데, 허리에 촘촘히 잡은 주름이 흘러 내려 밑단을 여미지 않아 마치 치마와 비슷한 형태를 이루는 것으로 랭그라브(rhingrave)라고 주로 불렸다. 1668년에 제작된 Bonnart의 판화¹⁰⁾에서도 살펴볼 수 있고, Victoria and Albert Museum에 소장된 1660년경의 Harry Verney경의 복식은 이와 같은 유형으로 Maurice Leloir에 의해¹¹⁾ 세밀히 관찰

된 바 있는 유형으로 브라켓트를 덧대어 앞여밈을 하였고, 앞여밈 끝으로 달린 허리 끝에 역시 단추가 달려 잠그도록 되어있다. 리본으로 허리와 바지 밑단을 장식하였다.



<그림 6> Ambreulle 공작, Bonnat, 1668.



<그림 7> Henry Verney
런던 V&A 박물관, 1660년경

3. 1700년 쥘로뜨(Culotte)형태

1670년경에는 상의 쥐스또꼬르가 뿌르쁘앙을, 하

의 쥘로뜨가 오 드 쇼스를 대신하면서 복식체계에 있어서 일대 변화기를 맞는다.

Lagniet 의 판화 두 점을 살펴보면¹²⁾, <그림 8>의 남자는 이전시대에 짧은 뿌르쁘앙 과 한 짝을 이루어 입던 랭그라브를 그대로 입고 있고, <그림 9>에서는 부피가 줄어든 오 드 쇼스를 무릎에서 묶어주는 형태의 쥘로뜨를 단순하고 활동적으로 보이는 쥐스또꼬르와 함께 착용하고 있어 변환기에 여러 스타일이 혼재된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림 8> 루이13세 시대의 옷입기, Lagniet, 1670.



<그림 9> 루이13세 시대의 옷입기, Lagniet, 1670.

1700년대에 와서 꺾로뜨의 형태가 완전히 고착된 것을 여러 그림 자료에서 발견 되는데¹³⁾, 바지통의 부피가 줄어들었고 밑단을 무릎 선에서 대부분 접는 방식으로 착용하였으며, 앞판 엉덩이 선 위치에서 가로로 주머니가 있어 단추로 채웠다. <그림 10>



Monsieur le Chevalier de Bouillon
<그림 10> Bouillon 기사, Bonnard, 1697.

4. 1730년 꺾로뜨(Culotte)형태

이 시기의 꺾로뜨는 대부분 긴 상의 아래 가려져 허리에서 엉덩이 부분의 형태를 그림 상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바지통의 밑착정도와 밑단의 형태로 이전 시기와는 분명히 구분이 된다고 보겠다. 18세기 중엽은 기술백과사전의 출간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이성시대의 결실을 이루던 때였다. 1760년경부터 여러 가지 기술을 주제로 다루면서 지속적으로 간행된 백과사전의 한 부분으로 '재단사의 기술(L'art du tailleur)'을¹⁴⁾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1730년 이후 18세기 말엽까지 사용된 바지의 전형적인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 11>

허리 뒤와 옆에 약간씩의 주름을 잡아 엉덩이 볼륨을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바지가 전체적으로 더욱 밀착되었다. 무릎아래까지 오는 좁은 다리통의 착용을 원활히 하기위해 옆선에서 밑단 쪽으로 트임을 주어 5-6개의 단추로 여미게 되어 있고, 좁은

밑단에는 긴 밴드형의 자르티에르(Jarretière)가 달려 끝을 버클로 여미게 되어 있다. 브라켓뜨가¹⁵⁾ 있는 앞여밈을 하거나, 브라켓뜨를 여밈으로 사용하지 않고 옆선에서 5 cm 가량 앞에 세로로 트임이 양쪽에 있어 앞 자체가 뚜껑처럼 열리는 꺾로뜨 아 뽕(culotte à pont, 다리여밈바지) 이라고 불리 우는 형태도 존재한다. 양쪽 옆선에 주머니 트임이 있고, 허리는 폭이 넓어져 앞여밈과 이어진 부분이 뒤 중심과 이어진 부분보다 더 넓으며, 허리띠 자체에도 앞 양쪽 혹은 한쪽에 가로로 작은 주머니가 있다.



<그림 11> 재단의 기술, Grasault, 1769



<그림 12> 꺾로뜨, 리옹박물관, 17세기 중반

위의 그림은 Lyon 직물 박물관에 보관된 같은 유형의 펠로뜨인데¹⁶⁾ 복부가 매우 비만인 경우의 것으로 허리를 길게 연장하여 윗부분은 단추로 채웠고, 뒤 중심은 트임을 주어 버클이나 끈으로 허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한 특수한 경우로 매우 흥미롭다. <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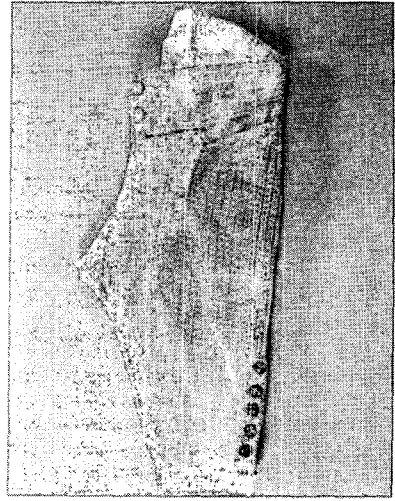
5. 1770년 펠로뜨(Culotte)형태

Esnault & Rapilly 의 판화와¹⁷⁾ <그림 13> Boilly 의 그림에¹⁸⁾ 등장하는 펠로뜨는 매우 좁아져 여유분 없이 엉덩이와 다리에 완전히 밀착되었고, 뒤 허리 부분에만 약간의 주름이 있어 엉덩이 여유분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세기말에는 바지가 몸에 극도로 붙는 실루엣이 되면서 패턴의 형태도 몸의 곡선에 더욱 가까워 졌다. 파리의 의상 박물관 (Musée des Arts et de la Mode)에 보관된 펠로뜨 한 점은¹⁹⁾ 매우 유사한 것으로, 엉덩이 부분을 밀착시키기 위해 앞길이보다 뒷길이 훨씬 길게 재단된 것을 볼 수 있다.

여밈은 앞 중앙에 뿌띠 뽕(petit pont, 작은다리 여밈) 이나 그랑 뽕(grand pont, 큰다리 여밈) 혹은 이 둘이 동시에 겹쳐있는 형태의 여밈을 사용하였다. 보다 세부적인 구조를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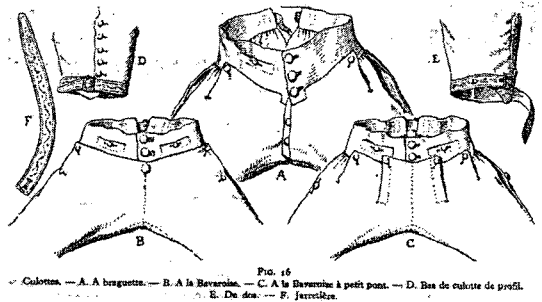


<그림 13> 프랑스 패션 갤러리, Esnaults et Rapilly, 1778.



<그림 14> 펠로뜨, 파리의상박물관, 1770.

M. Leloir의 연구<그림 15> 참조는 그 파악을 매우 용이하게 한다.²⁰⁾ 큰 다리 여밈은 앞 뚜껑을 여는 세로선이 옆선까지 가 있는 것이고, 작은 다리 여밈은 큰 다리 여밈의 반 정도 되는 길이로 중앙이 연결되어 뚜껑을 여는 것처럼 되어 있고, 중앙과 양쪽 끝을 허리에 달린 단추로 여미게 되어있으며, 여밈 아래로 앞 중앙까지 허리와 연결된 안감이 있어 빈 곳을 메울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림 15> 바지여밈, Maurice Leloir, 1933-1949.

엉덩이 부근 옆선에 단순한 세로 주머니 트임과 앞 허리에 현재의 한쪽 입술 포켓과 같은 가로 주머니 트임이 있고, 안감이나 가죽으로 된 속주머니가 연결 되어 있다.

앞 허리는 매우 넓고 뒤 중심으로 갈수록 좁아

드는데, 앞 중심에서는 2-3개의 단추로 잠그고 뒤 중심에서는 연결하지 않고 트임으로 두어 버클이나 끈으로 허리에 맞게 조절하게 되어 있다.

밀착된 바지 밑단에 옆선 쪽으로 트임이 있어 5-6개의 단추로 여미게 되어 있고, 밑단은 밴드형태의 자르티에르를 달아 버클로 완전히 채우게 하였다.

6. 유형별 변화 특성

프랑스 민속박물관에서 발간한 구간별 관찰법을 따라²¹⁾ 넓이항목, 길이항목, 디테일항목으로 크게 나누고, 각 항목에서 각 부분별로 세부항목을 다시 정한 후, 그 형태를 관찰하고 시대별로 비교함으로써 변화 특성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이 표로 제시하였다.

<표 1> 17-18세기 서양 남자바지 형태 변화 특성

		1630년 오드쇼쓰	1660년 랭그라브	1700년 펠로트	1730년 펠로트	1770년 펠로트
넓이	허리선	허리 재 위치이고 앞뒤 허리선의 높이가 같고 앞 중심에서 아래로 약간 기운다	허리 재 위치이고 앞뒤 허리선의 높이가 같다	허리 재 위치이고 앞뒤 허리선의 높이가 같다	앞은 낮고 뒤는 높아 앞뒤 차이가 진다	앞은 낮고 뒤는 높아 앞뒤 차이가 진다
	영덩이볼륨	허리전체에 뽁뽁한 주름의 양 만큼 영덩이가 매우 풍성함	허리전체에 뽁뽁한 주름의 양 만큼 영덩이가 매우 풍성함	허리 전체로 고른 주름으로 다소 여유 있는 영덩이 볼륨	앞 옆 허리부분과 뒤 허리에 약간의 주름으로 영덩이도 약간의 여유가 있다	앞 옆 허리부분과 뒤 허리에 약간의 주름이 있고 영덩이는 거의 밀착됨
	다리볼륨	매우 여유 있고 밑단까지 점차 줄어들	매우 여유 있고 영덩이 폭으로 밑단까지 연장됨	다소 여유 있는 볼륨	거의 밀착	매우 밀착
	밑단	종아리에 밀착됨	치마처럼 퍼짐	무릎에 밀착됨	무릎에 매우 밀착됨	무릎에 매우 밀착됨
길이	바지길이	종아리길이	무릎 위 혹은 무릎 길이	무릎길이어거나 약간 짧다	무릎길이	무릎아래 길이
	앞여밈	Braguette	Braguette 혹은 없음	Braguette	Braguette 와 pont	pont
여밈	허리띠	한 장의 일직선 허리	한 장의 일직선 허리	두 장의 일직선 허리로 뒤 중심에서 나뉘어 달린다	넓은 직선허리로 뒤 중심에서 나뉘어 달림	앞이 넓고 뒤로 갈수록 좁아져 뒤 중심에서 나뉘어 달림
	바지단 옆트임	가름술	없음	없음	앞 밑단 옆선에서 연장선을 덧대어 5-6개의 단추로 여밈	뒤 밑단 옆선을 연장하여 5-6개의 단추로 여밈
	바지단 여밈	리본으로 묶음	리본으로 묶음	여밈 없이 접어 입음	Jarretière부착하고 버클 여밈	Jarretière부착하고 버클 여밈
주머니	위치 및 형태	영덩이부근 옆선 속 세로 주머니	영덩이부근 옆선 속 세로 주머니	영덩이 부근 옆선 속 세로 주머니	영덩이부근 옆선 속과 허리띠 중간 가로주머니	영덩이부근 옆선 속과 허리띠 중간 가로 주머니

Ⅲ. Le tailleur sincère(진정한 재단사)와 L'art du tailleur(재단의 기술)에 나타난 17-18세기 의복제조기술

의복제조 기술에 있어서 드레이퍼리 의상은 단지 사각형 형태의 적합한량의 옷감만으로 구성이 가능하지만, 착장자의 사이즈에 맞게 몸에 밀착되는 형태의 의복에 있어서는 패턴이 필요하고, 패턴조각은 천에 잘 배치하여 재단하여 구성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패턴과 재단에 관한 현재 최초의 문헌은 1589년 마드리드에서 발행된 Juan de Alcega의 것으로²²⁾,

필요량의 천에 도식형태의 패턴을 배치한 그림을 오늘날 보다 매우 좁았던 폭의 천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랑스 문헌으로는 B. Bouilly에 의해 '진정한 재단사(Le tailleur sincère)'가 1671년에 최초로 발간되었으며²³⁾, 1769년에는 '재단사의 기술(L'art du tailleur)'이 Grasault에 의해 쓰여져 당시 재단에 관한 많은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²⁴⁾. 이후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수많은 패턴기술 서적들이 제작되어 패턴을 표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그 발전을 확인할 수 있어, 대량생산되는 기성복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본 연구의 해당연도에 발간된 'Le tailleur sincère'와 'L'art du tailleur'의 내용을 고찰하고, 특히 바지 패턴의 형태를 연구함으로써 당시의 재단기술들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앞장의 그림고찰과 더불어 재현에 이를 수 있도록 정보를 종합할 것이다.

1. Le tailleur sincère 에 나타난 재단기술과 바지패턴의 특징

Benoît Boulay에 의해 1671년에 출간되어 Colbert 재상에게 헌정된 패턴에 관한 두권의 문헌 "Le tailleur sincère(진정한 재단사)"는 한권은 In-8 folio (20 X 13 cm) 크기로 패턴 형태와 제작방법을 94장으로 구성하였고, 다른 한권은 더 큰 In-folio (40 X 26 cm) 크기의 동판화로 48장의 소요량의 천 크기에 패턴을 배치한 그림을 인쇄한 것이다.

기본복인 뿌르쁘앙(Pourpoint), 아비(Habit), 쥐스또꼬르(Justaucorps), 오 드 쇼쓰(Haut-de-chausses), 빵말롱(Pantalon), 필로뜨(Culotte)에서 수단(Soutane), 망토(Manteau), 까자끄(Casaque), 주교의 제의(Chape), 법복(Robe de palais), 기사복(Robe de chevalier de l'ordre), 친위대복(Robe de page)에 이르기까지 당시 재단사들이 만들었던 주요 유형의 옷들의 패턴과 제도를 다양하게 전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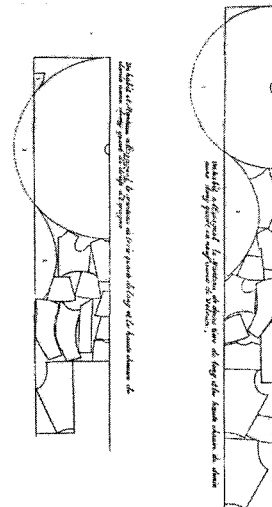
망또 패턴은 원형이고 제의나 까뽀(Capot)는 반원형으로 소매가 붙어있다. 폼파스 역할을 하는 끈을 사용하여 이 원형이나 반원형의 패턴을 재단하

였다. 반면 뿌르쁘앙, 쥐스또꼬르, 아비 등의 상의와 수단, 까자끄, 오 드 쇼쓰, 빵말롱, 필로뜨 등은 허리에 밀착되도록 제도된 것을 볼 수 있다.

각 용어에 따라 형태를 구별하였는데, 아비는 가슴을 덮고 허리까지 내려오며 신분에 따라 길이가 다소 길고, 뿌르쁘앙은 허리까지 오는 베스트 종류로 때로 소매가 없는 경우도 있으며, 뿌르쁘앙과 아비 둘 다 바스끄(basques, 페플럼 peplum)가 허리 아래에 달린다. 쥐스또꼬르는 무릎선 길이로 허리가 들어가는 원피스로 제작되는 차이가 있다.

쇼쓰, 오 드 쇼쓰, 필로뜨는 구분이 불분명하다. 이들은 치마처럼 넓은 바지통 형태이거나, 무릎으로 갈수록 직선적으로 좁아드는 모양의 패턴에 용어가 혼용되어 쓰였다. 빵말롱은 구별이 확실하여 다리에서 갑자기 줄어들어 밀착시키는 곡선 처리되는 형태를 지칭하고 있다.

이중 재현할 모델의 가장 유사한 바지 모양을 살펴보면, 후에 주름을 잡을 수 있도록 여유 있는 직선 허리로 폭이 넓고, 엉덩이 선을 따르는 밑위는 움직임 때 죄어들지 않게 다소 길며, 옆선은 직선으로 식서 방향과 일치시켰고 가랑이 안쪽이 사선으로 바지통이 밑단까지 점차 줄어드는 모양이다. 무릎보다 약간 긴 길이로 추정되고 밑단을 곡선으로 처리하여 움직임에 용이하도록 세밀히 제도 되었다. <그림 16>



<그림 16> 진정한 재단사, Benoit Boullay, 1671.

뿐만 아니라 각종 직물과 그에 다른 생산지와 직물의 폭의 기록을 통해 당시 사용된 직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사용된 직물은 주로 북쪽에서 생산된 1 온(aune) 혹은 1 aune 1/2폭의 모 성분의 평직, 능직과 1/2 aune 좁은 폭의 다양한 견직물 뿐 아니라 면, 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 당시 길이 측정이 일치하지 않은 때여서 지방마다 사용법이 틀렸으나 1 aune은 대략 오늘날의 1.188 m로 환산할 수 있겠다.

패턴을 그리기에 치수는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기 마련이다. "...모든 사람이 같은 길이와 치수가 아니며 마찬가지로 다른 종류의 직물은 다른 폭이다. 이에 15세에서 그 이상 가장 큰 길이와 치수를 가진 사람까지 필요량을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방법을 발견하였다."²⁵⁾

완성된, 패턴을 매우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치수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옷감에 가장 경제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전시하고, 더불어 옷 길이와 옷감 필요량에 관한 설명을 덧붙여 일종의 사용법을 제작함으로써 합리적인 재단기술을 제시하였다. 더구나 식서를 옷 길이 방향과 일치하도록 하는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림 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 조각이 큰 패턴을 먼저 배치한 후에 작은 조각들은 옷감의 절약을 위해 남은 부분을 이용하는 면밀함까지 설명하고 있다. "스페인 직물로 된 아비와 쥐스또꼬르의 예처럼 옷감의 폭이 넓어서, 오 드 쇼스는 옷감을 접어서 재단하는 것이 좋고, 아비의 작은 패턴조각들은 빈곳에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²⁶⁾

2. L'art du tailleur 에 나타난 재단기술과 바지패턴의 특징

1671년 B. Bouilly의 "Le tailleur sincère (진정한 재단사)"가 소개된지 1세기후 1769년에 왕립아카데미에서 발행한 기술백과사전의 한 부분으로 Garsault이 "L'art du tailleur (재단기술)"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하여 18세기 의복 구조와 세부적인 제조 기술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 저자는 여자, 남자, 어

린아이에서 궁중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의상을 제조하는 세밀한 묘사된 방법을 패턴과 더불어 소재, 측정, 봉제법, 재단법, 장식물과 의상 각각의 사용법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유형의 제작기술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면, 1660년에서 18세기 말까지 파리에서 재단사(Tailleur) 신분으로는 남성복, 여성궁중복의 트레인과 콜셋을 제작할 수 있었고, 봉제사(Couturière)는 슈미즈를 포함한 속옷과 8살까지의 유아들의 옷을, 패션상인(Marchande de Mode)들은 모자, 쓰개류, 숄이나 스카프류 혹은 의상을 장식하는 부속품들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중 재단사가 제조할 수 있도록 허가된 남성 의복의 종류로는 쥐스또꼬르(justaucorps), 베스트(veste), 질레(gilet), 까미졸(camisole), 필로뜨(culotte), 수단(soutane), 망토(manteau), 르덴고뜨(redingotte), 프락(fracque), 쉬르투(surtout), 블랑(volant), 로콜로르(roquelure), 법관복(robe de palais), 실내복(robe de chambre)이었다. 외투나 쥐스또꼬르 등의 소재로는 1 aune 5/4 나 1 aune 4/3 폭의 모직물들과 1/2 aune의 좁은 폭 벨벳이나 각종 견직물이 쓰였고, 베스트등의 중간 상의에 사용된 소재는 1/2 aune 폭의 기모, 능직 모직물이나 역시 1/2 aune 좁은 폭의 평직, 능직, 수자직, 금 은사 섞인 무늬직 실크가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장식이나 슈미즈 혹은 안감 재료로 쓰인 베일 역시 1/2 aune 넓이었다.

제작 시 재단사들은 평상과 같은 곳에 올라 앉아 대개 다리를 교차되게 하고 앉아 바느질을 하기도 하고, 탁자에 천을 펴 패턴을 그리기도 하며 작업을 했다. 이러한 모든 작업의 순간 바늘, 가위, 굴무, 초크, 단추 구멍 제조용 철 받침과 송곳, 망치, 칼, 다리미, 인두, 등근 봉재용 나무틀, 다리미 틀 등 여러 가지 전문적인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여러 번의 작업공정을 거쳐 세밀한 부분까지 완성도를 높인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에 와서 패턴의 형태에 따른 착장자의 치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출자 형태의 1 pouce (2.7cm)넓이의 긴 종이 테입으로, 치수를 재는 즉시

가위로 눈금을 잘라 표시하였다. 미터법으로 길이를 통일하기 이전까지 용이한 방법이었다. 팔 둘레, 등 넓이, 가슴넓이, 팔꿈치 길이, 팔 길이, 가슴둘레, 허리둘레, 옷 길이, 주머니 높이, 필로뜨 길이, 허벅지 둘레, 무릎 둘레 등 20여 항목을 측정하였고, 측정함과 동시에 어깨가 솟았는지, 벌어진 정도, 평평한 정도 등 인체구조를 관찰하여, 적당한 부속품을 선택하고 결점을 보완하였다.

패턴은 마분지, 종이, 머슬린 등으로 되어 옷감에 옮겨 그려 재단되었다. 종이로 된 각기 다른 치수의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 그 중 고객의 치수에 가까운 패턴을 선택하여 약간의 치수 조정을 하며, 옷감에 제도한다. 옷감을 최대한 절약하도록 옮겨 그리면서, 식서방향, 기모 방향, 문양의 방향과 위치 등을 고려하며 제도하였다.

재단된 옷 조각들은 흙질, 박음질, 감침질, 세발뜨기, 공그르기 등 패턴 조각을 잇는 봉제에서 단추 구멍 봉제에 까지 이르는 다양한 바느질법을 사용하여 자수, 심지 넣기, 단추 구멍 만들기, 주름잡기, 주머니 만들기, 앞판끼리 연결, 뒤판끼리 연결, 앞뒤판 연결, 아래 위 소매연결, 소매와 몸판 연결, 칼라달기, 장식하기 순으로 연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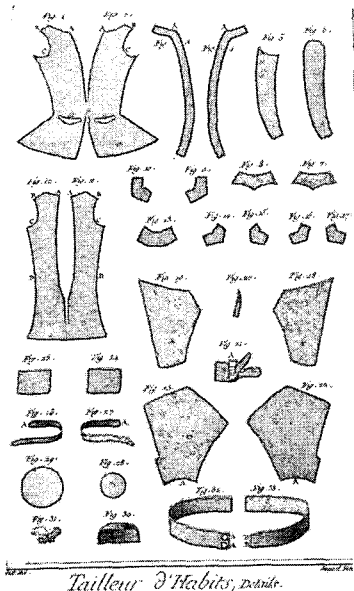
1780년 영국의 영향으로 소박한 패션이 되기 이전까지 여성복은 물론 남성복에도 장식은 중요한 부분이었다. 장식술, 장식끈, 자수, 리본끈 등 항상 새로운 장식을 찾았다. 단추, 남성복 커프스, 주머니 뚜껑, 도련, 허리, 트임주름, 바지단 등의 장식과 금은사가 섞이거나 화려한 무늬직물들의 사용은 신분과 형편을 가늠할 수 있게 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필로뜨의 패턴형태를 고찰하여 보면²⁷⁾, 앞판 두 장, 뒤판 두 장, 허리 두 장, 단 여밈 두 장, 앞여밈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판은 옆선은 직선이고 가랑이 안쪽은 무릎까지 점차 줄어드는 사선으로 다리통이 밀착되게 되어 있다. 허리선은 중심에서 낮고 옆선으로 갈수록 높아지며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옆선에서 중심 쪽으로 약간 들어온 곳에 앞여밈을 위한 세로트임이 있다. 앞 중심의 여밈 부분도 허리에 밀착시킬 수 있도록 사선으로 제도되어 있다. 뒤판 역시 옆선이 직선이고 가랑이 안쪽, 허리와 뒤 중심도 사선으로 되어있고 옆선 밑단 부분에 단추 여밈을 위한 돌출 부분이 길이로 있다. 밑단은 앞판은 볼록하고 뒤판은 오목한 곡선으로 제도하여 무릎 움직임을 고려하였다. 허리는 직선으로 폭이 넓고, 앞여밈과 뒤 중심에서 나뉘도록 두 장으로 되어 있다. 브라켓뜨는 허리까지 연장되도록 앞 중심 길이보다 조금 더 길고 한쪽이 약간 타원 곡선을 그린다. 두 장의 긴 자르티에르에는 한쪽에 단추 구멍을 내고 끝을 둥글게 하였다. <그림 17>

IV. 패턴제작 및 변화특성

기본치수는 허리둘레 79cm 엉덩이둘레 96cm 바지길이 55cm로 하고²⁸⁾ 최종 패턴은 CAD로 작업하여 1/10 축도로 제시하였다.

기본치수에 근접한 패턴형태를 먼저 머슬린에 그린 후, 그림사료에 의한 형태분석과 문헌사료 및 선행연구에 의한 패턴연구의 종합으로 머슬린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모델을 완성하고, 다시 분해하여 패턴으로 옮겨 재현하였다.



<그림 17> 재단의 기술, Grasault, 1769

1. 1630년경 패턴

앞 뒤판 각각 두 장과 허리 한 장으로 구성된다. 25 cm 가량을 주름 여유분으로 하는 바지폭으로 하고, 허리선은 거의 일직선으로 앞 중심에서만 아래로 약간 기우는 넓은 폭으로, 후에 촘촘하게 주름 잡아 2.5 cm 가량의 좁은 일직선 허리띠에 봉합하게 된다.

엉덩이 부분 역시 허리와 동일한 폭으로 넓어서 입게 되면 엉덩이 부분으로 주름이 몰려 편안하게 흘러내리게 된다.

옆선은 직선 형태이고, 다리통 안쪽은 바깥으로 급격한 경사를 이루어 무릎으로 갈수록 좁아 드는 형태의 패턴이다.

밑 위 길이는 매우 길며, 뒤 중심은 직선이고 앞 여밈 부분의 단추 달리는 부분은 오목하게 파여 몸

에 자연스럽게 밀착된다. 3cm 폭 12cm 가량의 브라켓트를 따로 재단하여 단추와 실고리로 앞여밈을 할 때 벌어지는 부분 속에 덧대어 연결하여 가렸다.

바지단선 앞은 내려오고 뒤는 올라가 무릎의 움직임이 편안하도록 되어있다.

2. 1660년경 패턴

앞판과 뒤판이 연결되게 되므로 양쪽 패턴 두 장과 직선 허리 한 장으로 구성된다.

바지 길이의 직사각형 큰 폭의 천을 반 접어 앞 허리중심에서 뒤 허리중심까지 이어지는 밑위 곡선을 그린 후 밑위는 남기고 가랑이를 직선으로 연결한다. 자연히 옆선은 생기지 않고, 좌우 양쪽을 대칭으로 똑같이 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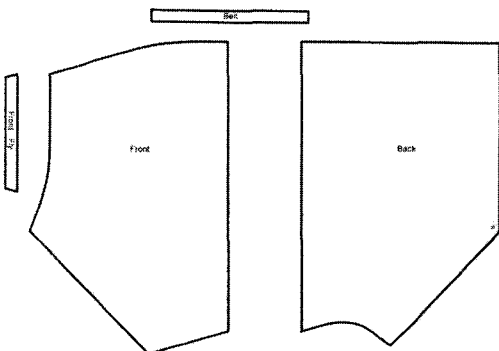
밑단은 오그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어 매우 넓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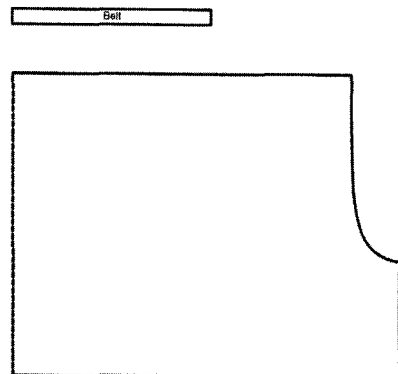
<그림 18> 1630년경 바지 머슬린 재현



<그림 20> 1660년경 바지 머슬린 재현



<그림 19> 1630년경 바지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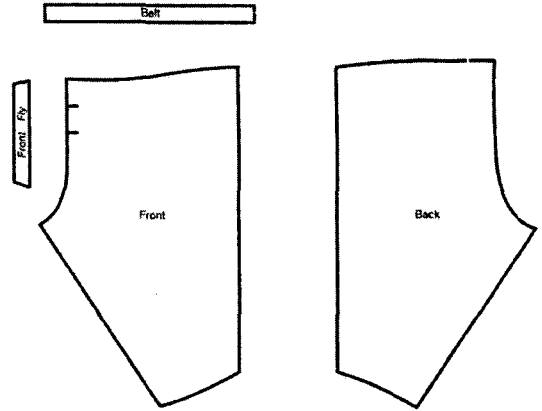
<그림 21> 1660년경 바지 패턴

폭의 치마바지 형태가 되고, 허리는 직선으로 넓은 폭 모두를 주름잡아 좁은 직선 허리띠에 고정시킨다.

앞트임에는 좁고 긴 직사각형 모양의 천을 덧대어 단추 여밈으로 벌어지는 부분을 가릴 수 있도록 하는 브라켓뜨가 달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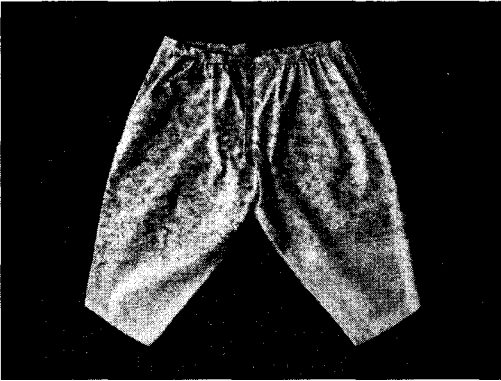
3. 1700년경 패턴

앞 뒤판 각각 두 장과 양쪽으로 나누어진 허리 두 장 그리고 브라켓뜨 한 장으로 구성된다. 바지 넓이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길이도 무릎 선으로 줄어들었다. 밑단은 옆선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선으로 재단하여서 착용하게 되면 수평이 된다. 허리선은 들레는 많이 줄었으나 직선허리선으로 주름을 고르게 잡아 허리띠에 고정시키게 되는데, 착용 시 허리가 편하도록 뒤 허리선 보다 앞 허리선을 낮게



〈그림 24〉 1700년경 바지 패턴

한다. 뒤 허리 중심에 5cm 가량의 트임을 만들어 허리띠도 두 장으로 분리하여 연결한다. 앞여밈이고 폭 3cm 길이 10cm 가량의 직사각형 브라켓뜨에 단추를 달고 반대편에 단추구멍을 만들어 잠그게 한다.



〈그림 22〉 1700년경바지 머슬린재현(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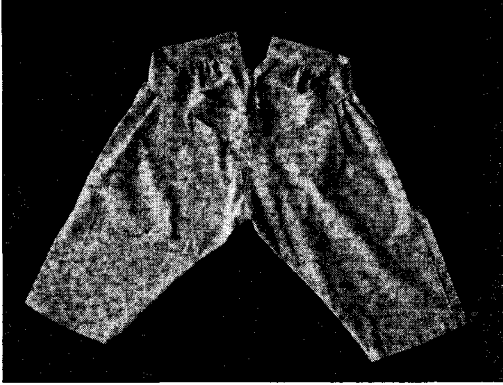
〈그림 23〉 1700년경바지 머슬린재현(뒤)

4. 1730년경 패턴

앞 뒤판 각 두 장, 허리 두 장, 브라켓뜨 한 장과 자르티에르 두 장으로 구성된다.

옆선은 일직선이고 다리 안쪽 부분은 무릎 쪽으로 기우는 곡선으로 파여지고, 넓이의 여유가 전체적으로 줄어 엉덩이부분이나 바지통이 딱 맞게 된다. 앞 허리는 기본 허리선보다 매우 낮아 앞 뒤 허리높이 차이가 많이 나고, 뒤 허리선과 만나도록 옆선으로 갈수록 허리선이 높아진다. 뒤 허리둘레에 여유 주름을 잡을 수 있도록 뒤 허리둘레보다 길이가 더 길고, 가량이 중심에서 뒤 허리 중심까지의 길이가 길어서 엉덩이부분에 여유가 생기게 된다. 이때 뒤 중심선과 뒤 허리선은 사선이 되며, 뒤판이 바이어스가 되어 신축성이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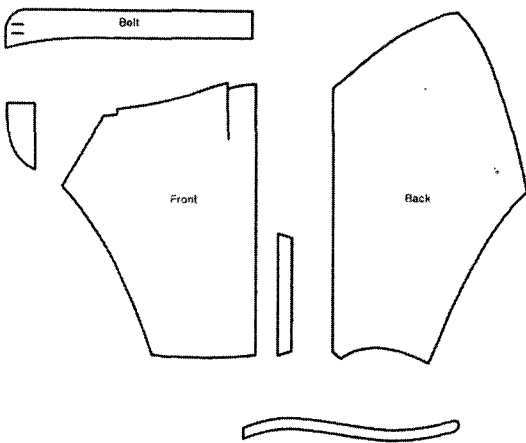
뒤 중심에 3-5cm 가량의 트임이 있고 여기에 폭이 넓은 허리가 좌우로 나뉘어 달려 끈으로 밀착 정도를 조절하게 되어있다. 허리는 앞의 폭이 뒤 보다 넓다. 여밈이 되는 앞 중심이 사선이기 때문에 넓은 허리띠가 바지에 달리게 되면 앞 중심이 직선으로 만나지 않고 벌어지게 되는데, 그 공간을 브라켓뜨가 길이로 달려 매우게 된다.



<그림 25> 1730년경바지 머슬린재현(앞)



<그림 26> 1730년경바지 머슬린재현(뒤)



<그림 27> 1730년경바지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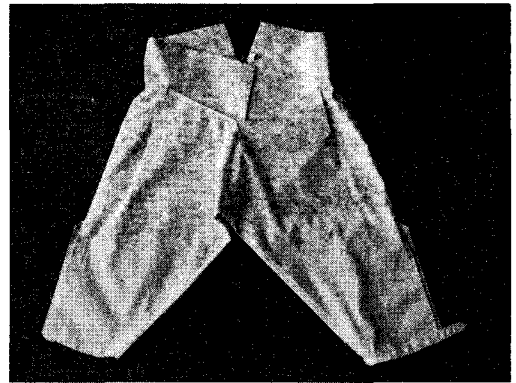
앞 중심에서 3 cm 떨어진 곳부터 옆선에서 5 cm가량 떨어진 곳까지를 허리띠에 연결하지 않고,

옆선 쪽의 것은 10cm 가량 수직으로 잘라 열 수 있게 만든다. 허리띠 쪽으로 2 cm 가량 연장하여, 시작과 끝에 단추 구멍을 내고 허리띠에 단추를 달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한다. 옆선 엉덩이 부분에 트임을 내어 속에 주머니를 만든다.

또 다리가 들어가기에 용이하도록 무릎 근처의 옆선에 트임을 주고 앞 판 쪽에 천을 덧대어 벌어지는 것을 막고, 밑단에 무릎 여밈을 조절할 수 있도록 버클 달린 2-3cm 폭의 긴 띠 자르티에르를 단다.

5. 1770년경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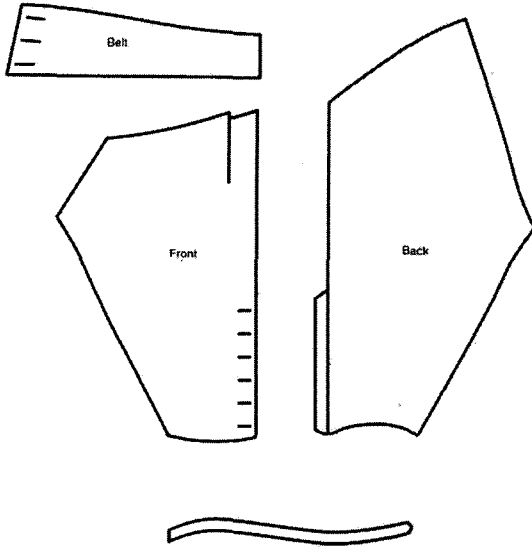
앞판 2, 뒤판 2로 구성되는데, 다리통이 여유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좁게 재단이 되고, 뒤 허리선과 뒤 중심선이 더 급격한 사선을 이루어 자연스럽게 엉덩이와 허리도 딱 붙게 된다. 무릎길이로 전반적



<그림 28> 1770년경바지 머슬린재현(앞)



<그림 29> 1770년경바지 머슬린재현(뒤)



<그림 30> 1770년경바지 패턴

인 형태는 1730년의 것과 유사하나, 무릎을 완전히 덮어 여밀 수 있도록 길이가 조금 더 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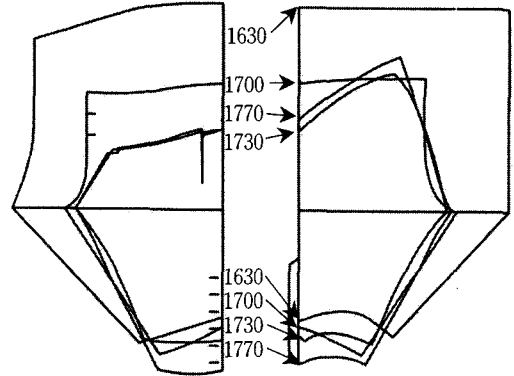
앞여밈은 허리 옆선에서 3cm 가량 들어온 지점에서 세로트임이 있고 허리 쪽으로 2cm 가량 연장시켜 허리띠 중앙과 트임 양쪽 끝에서 단추로 여미게 된다. 앞여밈 때문에 비는 공간은 그림과 같이 세모꼴 안감히 허리와 바지 몸판을 속에서 이어 주게 된다.²⁹⁾ 주름 잡힌 뒤 허리와 앞판 안감과 연결되는 허리띠는 앞 중심 12cm 뒤 중심 8cm로 넓고, 뒤 중심에서는 끈이나 버클로 조절하는 삼각 트임 때문에 사선이 된다.

무릎 부근의 옆선 트임 처리를 위해 뒤트임 선을 2cm 연장하여 단추가 달리는 위치를 만들고, 앞트임선 위치에 단추 구멍을 내어 잠글 수 있게 한다. 바지 밑단의 앞무릎 쪽은 약간 튀어나오고 뒤 무릎 쪽은 파이게 하여 무릎이 움직일 때 밑단과 부딪힘이 없게 하였고, 여기에 자르티에르 역시 약간 S자형으로 흰 밴드 형태로 만들어 달아 끝에 한쪽에는 버클을 달고 다른 쪽에는 구멍을 내어 여미게 한다.

6. 패턴변화 특성

<그림 31>과 같이 엉덩이 선을 기준으로 완성된 패턴을 겹쳐 비교하여 변화의 차이를 고찰하고, 그

변화 특성을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특히, 바지를 몸에 밀착시키기 위한 패턴변화의 고찰이 주력하여 1660년경 랭그라브 패턴은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31> 17-18세기 서양 남자바지 패턴 비교

V. 결론

길이항목은 무릎 선을 기준으로 오르내리는 정도의 변화를 보였으나, 허리둘레, 엉덩이볼륨, 다리통 넓이, 밑 단 등의 길이항목은 주름을 줄이고 재단선의 변화를 주어 밀착시키는데 주력함으로써 점차 단순하면서도 섬세한 패턴제작 기술이 개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허리, 주머니, 여밈, 트임 등 디테일한 부분에 새로운 재단과 봉제법이 고안되었다.

1. 허리선은 바지가 점차로 밀착되면서 전체적으로 주름분이 많은 직선 허리에서, 옆 허리와 뒤 허리에 여유를 위한 약간의 주름분이 있는 앞 중심이 낮고 뒤 중심이 높은 사선 허리로 바뀌었다.

2. 옆선은 직선인 상태로 길이 항목의 기준선이 되고, 주름분이 줄면서 앞 중심도 들뜨지 않도록 밑위에서 허리로 기우는 사선이 되었다.

3. 1630년경의 패턴에서 엉덩이둘레는 허리둘레에 균형을 맞추어 매우 크다가, 1690년경부터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엉덩이부터 허리에 이르는 뒤 중심도 직선이던 것이 허리로 갈수록 줄어들어 곡선 혹은 사선이 되어 허리 엉덩이 구간부를 밀착시켰다. 밀착될수록 밑위길이를 짧게 하고 벨트 크기가 넓어 졌으며 이는 움직임을 용이하게 하였다.

<표 2> 17-18세기 서양 남자바지 패턴 변화 특성

		1630년 오드소스	1660년 랭그라브	1700년 펠로트	1730년 펠로트	1770년 펠로트
넓이	허리선	수평직선으로 앞 중심에서 아래로 약간 기운다	수평직선으로 앞 중심에서 아래로 약간 기운다	수평직선으로 앞 중심에서 아래로 약간 기운다	앞 중심에서 옆선, 뒤 중심으로 갈수록 급격히 높아지는 사선	앞 중심에서 옆선, 뒤 중심으로 갈수록 급격히 높아지는 사선
	허리둘레	매우 많은 주름분으로 밀착	매우 많은 주름분으로 밀착	전체적으로 고른 주름분으로 밀착	옆 허리와 뒤 허리에 약간의 주름분으로 밀착	옆 허리와 뒤 허리의 매우 적은 주름분으로 밀착
	앞뒤중심선	뒤는 직선 앞은 직선으로 내려오다 밀위점까지 완만한 곡선	앞뒤 모두 직선으로 내려오다 밀위점까지 완만한 곡선	직선으로 내려오다 밀위점까지 완만한 곡선	앞뒤 모두 허리에 밀착되도록 사선	앞뒤 모두 허리에 밀착되도록 사선
	엉덩이둘레	엉덩이 둘레보다 매우 넓다	엉덩이 둘레보다 매우 넓다	여유분을 가지고 밀착	매우 적은 여유분으로 거의 밀착	매우 적은 여유분으로 거의 밀착
	밀위길이	1/3가량 더 연장된 매우 긴 길이	1/3가량 더 연장된 매우 긴 길이	약간의 여유분을 지니고 인체 밀위 길이와 근접	앞은 짧고 뒤는 보통	앞은 짧고 뒤는 보통
	다리통	옆선은 직선이고 가량이 안쪽은 사선으로 매우 넉넉하게 다리 실루엣을 따름	옆선과 가량이선 모두 직선으로 밀착되지 않는다	옆선은 직선이고 가량이 안쪽은 사선으로 여유있게 다리에 밀착됨	옆선은 직선이고 가량이 안쪽은 사선으로 다리에 완전히 밀착됨	옆선은 직선이고 가량이 안쪽은 사선으로 다리에 완전히 밀착됨
	밑단	여유있게 밀착되고 앞은 사선 뒤는 파인 곡선	엉덩이 넓이의 직선	밀착된 사선	밀착되고 앞은 수평의 볼록한 곡선이거 뒤는 파여진 곡선	매우 밀착되고 앞은 수평의 볼록한 곡선이거 뒤는 파여진 곡선
길이	바지길이(옆선)	직선의 종아리 길이	직선의 무릎위 길이	직선의 무릎길이	직선의 무릎길이	직선의 무릎 바로 아래 길이
	다리길이(가량이선)	사선의 종아리 길이	직선의 무릎 위 길이	사선의 무릎 위 길이	사선의 무릎길리	사선의 무릎 바로 아래 길이
여름	앞여름	허리에서 직선으로 내려가다 밑 중심까지 휘어지는 곡선	허리에서 직선으로 내려가다 밑 중심까지 휘어지는 곡선	허리에서 직선으로 내려가다 밑 중심까지 휘어지는 곡선	허리로 갈수록 좁아드는 사선	허리로 갈수록 좁아드는 사선
	허리띠	직선허리띠	직선허리띠	직선 허리띠	넓은 사선 허리띠	넓은 사선 허리띠
	바지단 옆트임	20cm 길이	없음	없음	앞 옆선 밑단에서 20cm 가량 트임을 하고 3cm 폭의 연장천을 덧댄	뒤 옆선 밑단에서 20cm 가량 트임을 하고 3cm 가량 연장
	바지단 여름	없음	없음	없음	S자형 긴 jarretière	S자형 긴 jarretière
주머니	위치 및 형태	엉덩이부근 옆선 속 세로 주머니	엉덩이부근 옆선 속 세로 주머니	엉덩이부근 옆선 속 세로 주머니	엉덩이부근 옆선 속과 허리띠 중간 가로주머니	엉덩이부근 옆선 속과 허리띠 중간 가로주머니

4. 밀위가 짧아져 드러나는 허리 부분을 폭이 크게 늘어난 허리띠가 대신하였는데, 밀위길이를 계속 연장하는 효과도 있지만 바지 몸통과 허리띠 이음

선에서 소량의 다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여 한 번 더 밀착을 시켰다.

5. 바지 밑단은 무릎의 형태와 움직임을 편하게

하기위해 바지폭이 넓은 1630년경에는 옆선 쪽으로 올라간 사선이던 것이 1700년 이후 무릎에 완전히 밀착되면서 앞은 내려오고 뒤는 올라간 곡선으로 섬세한 재단 선을 보이고 있다. 밑단 여밈 또한 이 곡선을 따라 S자 형으로 따로 여밈 벨트를 부착하여 줄라 댈 수 있게 하였다. 1630년경에는 밑단 세로트임을 그대로 열어두다가 1730년경에 부터는 바지통이 급격히 줄면서 벌어지는 부분을 가리기 위해 천을 덧대던 것이 점차 바지몸판 자체를 연장하여 트임을 처리하였다.

6. 17세기에는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브라켓뜨가 있거나 없는 단추 앞여밈이 지배적으로 쓰였고, 18세기 중반부터는 다리 여밈 바지(culotte à pont)을 착용하였다. 바지 단은 17세기에 리본이나 천으로 묶어 여미다가, 17세기말에 무릎 선에서 접어 마무리하였고, 17세기 상반기부터 자르티에르를 바지 밑단에 달아 여밈은 발전된 형태를 보였다. 주머니 위치는 옆선 속의 주머니 트임이 주로였고, 18세기 하반기에 앞 허리띠가 넓어지면서 앞 허리띠 자체에 작은 한쪽 입술주머니를 만드는 등 세부 봉제방법이 고안되었다.

참고문헌

- 1) Leroi-Gourhan, A. (1971). *L'homme et la matière*. Paris: Edition Albin Michel, pp. 313-326.
- 2) Bosse, A. (1625). *La noblesse française à l'église*. Paris: Bibliothèque de Nationale de France.
- Bosse, A. (1629). *Le jardin de la noblesse française*. Paris: Bibliothèque de Nationale de France.
- Bosse, A. (1634). *Pièces concernant la modes et les édits*. Paris: Bibliothèque de Nationale de France.
- 3) Arnoult, J. (1985). *Patterns of Fashion: The cut and construction of clothes for men and women c1560-1620*. London: Macmillan London Limited, pp. 86-87.
- 4) Leloir, M. (1933-1949). *Histoire du costume de l'Antiquité à 1914: Epoque Louis XIII 1610-1643*. Paris: Ernst, p. 83.
- 5) *Ibid.*, p. 27.
- 6) Elle, F. (1631). *Henri II de Lorraine*. Reims: Musée de Reims.
- 7) Roy, H. (1924). *La vie, la mode et le costume au XVIIIe siècle: Epoque Louis XIII: Etude sur la cour de Lorraine*. Paris: E. Champion, pp. 203-204.
- 8) Le Nain, M. (1650). *Les joueurs de tric-trac*, Paris:

Musée du Louvre.

- 9) Van der Meulen. (1663). *Louis XIV recevant les ambassadeurs suisses*, Paris: Musée de Versaille.
- 10) Bonnart, N. (1668). *Le Marquis d'Ambreuil*, Paris: BNF, Oa19M11512.
- 11) Leloir, M. *op. cit.*, p. 23.
- 12) Lagniet. (1670). *La manière que les françois sont habillé sous règne de Louis XIII*. Paris: BNF, Oa19M11514.
- Lagniet. (1670). *La façon que les françois sont habillé sous Louis XIII*. Paris: BNF, Oa19M11516.
- 13) Bonnart, H. (1697). *Monsieur le chevalier de Bouillon*. Paris: BNF, Oa66C3278.
- 14) Grasault, F. A. (1769). *L'art du tailleur*. Paris: BNF.
- 15) Leloir, M. (1933-1949). *Histoire du costume de l'Antiquité à 1914: Epoque Louis XV: 1725-1774*. Paris: Ernst, pp. 21-22.
- 16) (17세기중반) *Culotte satin rayé*. Lyon: Musée des tissus de Lyon, 재부번호 30884/2.
- 17) Esnauts et Rapilly (1778). *Galerie des modes et costumes français*. Paris: BNF, Oa81C6141.
- 18) Boilly, L. (1790). *Ce qui allum l'amour l'éteint*, Saint-Omer: Musée de Saint-Omer.
- 19) (1770). *Habit d'homme*. Paris: Musée des Art et de la Mode, costume 51-39-1.
- 20) Leloir, M. *op. cit.*, p. 22.
- 21) Duflos-Priot, M.-Th. (1988). *Système descriptif du costume traditionnel français*. Paris: Musée national des arts et traditions populaires: Centre d'éthnologie française.
- 22) Alcega, J. de. (1598). *Libro de geometrica*. Espagne: Fac-simile de l'édition.
- 23) Boullay, B. (1671). *Le tailleur sincère*. Paris: BNF.
- 24) Grasault, F. A. *op. cit.*
- 25) Boullay, B. *op. cit.*, préface.
- 26) Boually; B. *op. cit.*, préface.
- 27) Boullay, B. *op. cit.*, p. 25.
- 28) 파리의상박물관 17-18세기서양복식전문 학예연구사 Jean-Paul Leclercq에 의하면, 17-18세기 보관된 남자바지의 크기는 매우 다양하여 평균치수를 산정하기 어렵고, 패턴을 그대로 옮기는 식의 선행연구 보다는 패턴의 형태재현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동감한다. 학예연구사는 소장품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크기의 1750년경 펄로트 (재부번호 10532. C)를 제시하여, 계측을 실시한 결과 허리둘레 79cm 엉덩이둘레 96cm 바지길이 55cm 였다. 이는 남윤자의 남성복연구(1996)에서 제시한 신사복하의 치수 규격에 따른 size spec 80-97 호칭에 근접하고, 재현복식의 표준화의 가능성 또한 시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치수를 기준으로 재현하였다.
- 29) Grasault, F. A. *op. cit.*, pl. VII.